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스런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선두마차로 내세워 주신 믿음 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이 자랑스런 과학연구성과 달성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이 뜻깊은 10월의 경축광장에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설 불타는 피범을 안고 올해 정초부터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수많은 연구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꽃피어나가는데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선두마차라고 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성다해 보답해나가고 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평안한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서야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책임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비약적인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직적사업을 적극 꾀고있는 한편 현지에 자주 나가 교원, 연구자들의 양양한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대학에서는 수시계 대상에 100여건의 주요과학연구과제를 당장진 일꾼들까지 팔팔 높은 전투투쟁을 세우고 집단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어려움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연구력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주었다. 그리고 배주, 매월마다 그 추진정형을 토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우선적으로 풀어주었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연구과제를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려 올때 첫작부터 경에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랑스런 성과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올해 1월 평양시비석공장의 현대화사업과 당의 인민사망, 후대사망이 갖는 유형구강병원과 육류자동병원의 의료봉사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해결에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바쳐 경에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았다.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무한히 고무된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지난 2월에 또 과학연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정전강계단식발전소 발전기보호용은 도수감소자를 개발하여 생산도입하고 황해남도물공사를 다그칠수 있도록 탐사하고 팔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원수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렸다.

지난 5월 조선인민군 어느 한 공단에서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의 책임일군으로부터 국수생산공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었다.

이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건설에서 탐과 열정을 아끼지 마신 평양시비석공장과 평안도내에 크게 이바지한 여러 대학들과 함께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의 위훈도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밖에도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국가적의과 큰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 경에하는 원수님에게 커다란 기쁨을 드림으로써 당에 무한히 충실한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의전을 더욱 빛내일 한 마음으로 조선혁명박물관 전시도판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적극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아니라 당의 영도업적을 전하며에 이바지하는 서해감문정경사관의 전자조종장치제작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당에서 중시하는 대외통신장비에 달하며에 애국헌신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주어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과학기술전진선상에 달려 나간 대학의 강력한 연구집단은 여러 부문 전지구적 학술안을 높은 수준에서 작성하였으며 수시계 전의 전시품을 새롭게 작성설계하고 제작한것은 한편 다대제 자료기, 제품소재자료기, 학술도판자료기 등 많은 자료를 수차와 및 목록화하는 파우를 제기하여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양이민이식로공공장 현대화사업에 망라된 대학의 연구집단은 공우유동체적과 공우유동장공정의 무인화에 필요한 수시품의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한것으로써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의전을 더욱 빛내일 한 마음으로 조선혁명박물관 전시도판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적극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아니라 당의 영도업적을 전하며에 이바지하는 서해감문정경사관의 전자조종장치제작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당에서 중시하는 대외통신장비에 달하며에 애국헌신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주어 10월의

사 리 원 탄 광 에 서

사리원탄광의 일군들과 전투들이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결사로 빛내어야 하겠 습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포구호를 피리는 심정으로 받아안은 탄광일군들과 전투들은 당창건 일흔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일념으로 승리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려왔다.

일군들부터가 아전형의 지휘선언이 되어 생산자대중에게 깊이 들어가 화산선진, 화산선진들의 모습을 높이면서 높이 내세운 석탄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전으로 전투들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조직의 지도에도 참모부 일군들은 자체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선진관리와 기술관리에서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생산자대중과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자신들부터가 앞장을 메고 뛰었다.

특히 동발과 쇠바줄을 비롯한

중산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려

본사기자 김명훈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

합흥청년전기 기구공장에서

합흥청년전기 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지난 9월 25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청원강계단식발전소와 백두산형용청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사업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요구하는 수많은 대상설비를 기한전에 생산하여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창건 일흔년을 앞두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성달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한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삼대 투쟁하여야 합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포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초부터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자랑스런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서기 위한 합친 투쟁을 벌리었다.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당위원회

원동연안반과 선반, 중주파유도 로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도 그 과업을 훌륭히 완수하였다. 이들은 여러 공정을 거치던 중전계 생산공정을 줄여 인건을 적게 들이면서 제품의 생산성과 질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직장, 작업반조상관 사회주의 경에히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일터마다에서 열의 혁신이 창조되었다.

생산의 선형정진을 맡아나선 소재비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견지해 하면서 주물공과 제분공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청년조직기구직장과 분전합, 형태, 인민기구, 무리동, 공무동력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동공물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리며 제품공과 조립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지표별로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러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분전합과 조종기 비롯한 13종에 달하는 320여대에 달하는 청년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다스달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12종에 수백대에 달하는 백두산형용청년발전소 대상설비도 기한전에 생산보장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강냉이가을걷이에 력량을 집중

평안북도 농업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을 울려펀 높은 알곡생산성과 빛내일 열의에 넘쳐 강냉이가을걷이시작

평안북도 농업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을 울려펀 높은 알곡생산성과 빛내일 열의에 넘쳐 강냉이가을걷이시작하며 기세를 북돋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충추에서 불내여름내 애써 농사를 지어내 가을걷이와 낱알탈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슬픈 낱알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 모운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어 강냉이가을걷이전투에서 열의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고있다.

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시, 군들을 맡고 내려가 트랙터, 탈곡기 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수리정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을걷이준비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

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시, 군당조직에서는 공장, 기업소에서 협동농장들의 탈곡기와 트랙터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공물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구성시와 향산, 태천, 대관, 삭주, 박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강냉이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력량을 집중하여 강냉이가을을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특히 향산군에서는 지난해 가을걷이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 가을걷이준비를 신속하게 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강냉이가을을 적기에 집중적으로 외따다 다그쳐 끝내도록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당창건 일흔년을 높은 알곡생산성과 빛내일 열의에 넘쳐 인민군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냉이가을걷이시작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석탄광 5명 《쌍둥이》 채탄 중대장

채탄 1중대장 강원철동무와 3중대장 1중대장 백성철동무들은 일군들과 전투들속에서 《쌍둥이》 채탄중대장이라고 정답게 불리워지고있다.

지난 8월 중순 어느날 길은 밤 생산자회를 위해 5명 채탄 1중대장까지에서 다가간 탄광일군의 눈앞에는 채탄공들과 함께 걸한 일순으로 통발

결음을 멈추었다. 《탄차는 모두 만적이다. 끌어올리려!》 인민정당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3명 채탄 1중대장 백성철동무였다.

강원철, 백성철동무들, 그들은 생산에서나 생산문화에서나 설비관리에서나 서로 알지못할 양보하지 않는 탄광의 《쌍둥이》혁신자중대장들이다.

로동통신원 연 전 행



로씨야에 가는 최고재판소대표단 출발

《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의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진행되는 국제법전문단에 참

비행장에서 우상철 최고재판소 부소장과 알렉산드르 마체코프 주조 로씨야변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간단한 측정기구를 리용하여

분덕군 통일협동농장 제 4작업반에서

올해에도 작업반에서는 포화수시물대기와 간단물대기방법으로 이 시기의 물관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하여 물을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논벼생육에 유리한 토양환경을 마련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양습도를 80~85%정도로 되도록 보장하면 땅속습도가 좋아진다. 그와 동시에 일정한 정도의 물부족을 느끼는 논벼뿌리는 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활성이 높아지고

필요한 영양분들을 빨아들이며 벼의 어문과 천일질량은 오르게 된다.

논벼의 이런 생물학적특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한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물관리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분발해나갔다.

특히 이들은 당의 뜻대로 눈집과 손집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물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여기에 또 하나의 알곡증산에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실이 기구를 불어놓는 다음 고안에 따라 해당 부문 과학자

순결한 향심으로 걸는 길

해산시 신흥동 46인민반 송선녀동무

저며 도급기관에서 원원하는 일군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게 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자기도 백두산철제위인들의 영도자욱이 뜨겁게 들끓어오르는 시기에 순결한 향심을 바치리라 하는 자기가 결심을 두드렸다.

돌격대원들을 세기하는 그의 걸음을 당조직에서는 적극 지지

해주었다. 사름치며 흐르는 압록강의 물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는듯싶었다.

만경대구역 당상 2동에서 살던 송선녀동무가 남편을 따라 해산시로 간것은 10여년전이었다. 나사자한 정은 정양을 떠나 압록강기슭으로 갈 때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었다. 비록 부모형제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깨끗한 향심을 인생길에

실화

생원암으로 올라가는 등산길의 양옆은 온통 넓은일나무와 바늘잎나무의 푸른 잎사귀들로 단장한것 같았다. 따스한 햇빛이 푸른 잎사귀들사이로 스며들자 기묘모호한 바늘들이 감돌며 흉터내리는 산골짜기도 그 빛을 받아 반짝이면서 묘향산계곡의 특색을 교향악을 울리고있었다. 그러나 지인의 절묘한 풍치도 묘향산벽사막물관 판장 김영숙의 논객을 팔지 못했다. 생원암등수에 올랐 기와를 지고 박물관종업원들과 함께 등산길을 따라 오르는 김영숙의 안색은 그리 밝지 못했다.

며칠전 자기 방에서 읽은 일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

간중 나무도, 꽃밭, 호미들 손에서 놓아본적이 없는 사람이 장병국원에만장이다. 겉나무양 묘도 하고 전담대, 백일종, 철종과,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각종 꽃들과 지피식물들을 해마다 수만포씩 심는다고 하며 돌아갈때마다 물에 손발이 한 수무개 붙어있었던 좋았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사람이 바로 그다. 한두 세손으로 뜻을 이루고 싶다면, 남들이 안겨주는 축의 꽃다발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허나 언제 한번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의 투쟁은 입학으로 뛰어나온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해마다 신의주, 구장, 최현 등을 애주룩웃으며 기자간에 각 지역의 꽃모와 나무모를 훔쳐와 함께 배양에 넣어 지고오는 것들을 미망한 의무로 간주하고 거기서 긍지를 찾는 사람이다. ...

김영숙은 서둘러 결문을 짓지 않았다. 생나무꼭두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없기에 잠시 담미를 주고 지고도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꾸준히 일하는것이 곧 위훈이고 영예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할 일념으로 목재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위

복구할 때의 추억은 이야기들 들려주었을 것이다. ...

<무슨 생각을 그러도 깊이하 십니까?> ...

그날 늦은 시각이 멀지 않은 데 거기가 잠깐 쉬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보십시오. ...

송도원의 통치에 어울리게 아름다운 동화기술에 아담하게 자리잡고있는 동명려관은 봉상성이 높아 손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단원이 아니니 ...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후

서있는데 한강을 느끼었다. 남들의 눈길에 쫓아 다니지 않는 길은 산속에서 일하지 않는 마음으로 ...

김영숙은 서둘러 결문을 짓지 않았다. 생나무꼭두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없기에 잠시 담미를 주고 지고도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꾸준히 일하는것이 곧 위훈이고 영예이다.>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후

서있는데 한강을 느끼었다. 남들의 눈길에 쫓아 다니지 않는 길은 산속에서 일하지 않는 마음으로 ...

김영숙은 서둘러 결문을 짓지 않았다. 생나무꼭두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없기에 잠시 담미를 주고 지고도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꾸준히 일하는것이 곧 위훈이고 영예이다.>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후

서있는데 한강을 느끼었다. 남들의 눈길에 쫓아 다니지 않는 길은 산속에서 일하지 않는 마음으로 ...

김영숙은 서둘러 결문을 짓지 않았다. 생나무꼭두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없기에 잠시 담미를 주고 지고도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꾸준히 일하는것이 곧 위훈이고 영예이다.>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농업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려놓고 ...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서야 한다

목화생산계획을 해마다 수행한 와우도구역 신령목화전협동농장에서 ...

대중체육사업을 이데처럼 짜고들자

동명려관 일꾼들의 사업에서 ...

은를군 연합동농장에서

버섯기르기에 ...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이 미국 한 학자가 쓴 《지구를 둘러싼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전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이 세계각지에 800개의 군사기지를 전 세계에 걸쳐 솔한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는데 그것이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대국들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뿐아니라 전쟁위협위험을 더욱 높이는 근원으로 되고있었다는 것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반영한 평가이다.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항시적인 위기에 처해있는것은 전적으로 해외군사기지를 거점으로 강행하는 미국의 침략과 팽창정책에 있다.

미국이 저들의 해외군사기지를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정당화하고있지만 그것은 한자 구실에 불과하다.

명백히 하전대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러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전략의 전초기지이며 여기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부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압력존재이다.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인 된 남조선의 신평대 그것을 실증해 주었다.

력대적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은 평화의 파괴자, 전쟁의 근원으로 되어왔다. 미국이 남조선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무력을 주둔시킨것은 결코 《방어》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것이 아니다. 침략적인 대조선정책과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 강행한 첫 순간부터 이곳을 군사적으로화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켜왔다.

12월 직승기사건 등이 바로 미강점군이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세로 몰아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대표적사건들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침략적성격은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판도와 하와이, 일본 등 태평양지역의 군사기지에 배비된 해상 및 공중타격무력의 증원필에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해안상륙, 중심타격, 점령지역평정 등 실전연습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는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침략전쟁을 위해 존재하고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체는 세력이다. 지금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심전략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은 군사적우세로 패권을 틀어쥐는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미국에 도전해나설수 있는 잠재적수들이 있다. 미국은 바로 이런 잠재적수들을 힘으로 누르고 군사적우위를 보장할수 있는 기본력량을 남조선강점 미군으로 보고있다. 때문에 미국은 남조선에 최선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미강점군을 질적으로 강화하고있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작전방향이 조선반도경의를 훨씬 벗어나는 각종 최선진장비들을 투입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을 여기에 속달시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군사타격력과 원거리작전능력을 강화하여 절대적 군사적우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대

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주변나라들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며 경계하고있는것은 그 때문이다.

남조선의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책동에 하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의 파도가 일고있다. 조선반도는 항시적인 전쟁위협이 떠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주변나라들에도 침사 전격미국으로 성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대로 인민의 나라이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어제는 오늘에 세계 곳곳에 미군사기지가 동지를 끌고있는 한 세계의 평화는 항시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며 인류가 언제든지 전쟁의 참화와 재난을 입을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군사기지와 미군부대들이 전쟁위협을 보다 높이는 원인으로 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두고있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하루빨리 철폐하고 무력을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그대로 두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논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그 외에 다른 방도는 있을수 없다.

이것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인류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는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있다.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자본주의가 흥대낼수도가진수도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인민의 행복과 존엄을 쫓아워주고 빛내어주는 공화국을 《인권이 최상의 정치에서 보장되는 나라》, 《광은 아들의 나라》, 《미래가 창창한 사회주의조선》이라고 격찬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알콜라인인생애동 청년조직전국미국 선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대로 인민의 나라이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조선인민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속에 행복하게 살고있다. 세계는 《선진국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세상이 없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조선에 실업자가 없는것은 또 하나의 놀라운 현실이다.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조선이야말로 인민의 모든 권리와 존엄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수리인생 《알 바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 《인권을》을 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공세를 벌이고있다.

하마면 조선의 인권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조선은 학교갈 나이에 이른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심심산골

이든 외진 섬이든 학교를 세워 배운의 고소리가 그 어디에서나 울리게 되고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 나라이다.

사람들은 치료비없이 건강을 담보받았고요 의사당당국에게 실시되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치료해주는 가장 우월한 환경하에서 전진적인 무상치료제 실시되고있다.

민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조선은 그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가 지어준 집을 배정받아 생활하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상이 없는 나라, 실업자가 없는 나라, 노동쟁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있으며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는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성된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인민의 참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있으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존재하고있다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가며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미국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인민적시책이 실시되는 속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살아가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피와 살도 쓰임없이 바치고있다고 하면서 수없이 미국이 괴악한 현실을 놓고 사람들에게 들을 어는 나라고 더 실기 좋은 나라인가를 묻는다면 모두가 조선이라고 대답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부위원장 장은 평안과 회담에 넘쳐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은 그 무엇으로써도 강요할수 없고 꾸밈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알남의 직업에 대한 압박감과 실업에 대한 불안감, 폭력에 대한 공포 등 자본주의사회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조선에서는 도무지 찾아볼수가 없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리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나라의 주권은 모두 인민들에게 있으며 그들은 자기 자신이 미래를 설계하고 창달하는 자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범가리아조선친선협회는 블레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지하였다.

사회경제적리보장에 있어서 조선은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실업자가 없고 로동할 권리가 인민히 보장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사람들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집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향유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일몰러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길을 굿이 걸고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은 인민생활향상에 지향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것은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적생활기지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월남신문 《세 썬씨》 8월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견문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이라는 표제하에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해설글과 함께 올린 두면 특집하였다.

현시조 조선은 오아시스와 같은 나라이다.

서방출판보도물들은 항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암담하게 묘사하고있다.

적지 않은 언론들이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경계적으로 보도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생활은 의연 매우 훌륭한 상태이다.

《연도이 년간》 9월에는 평양 국제비행장을 소개하는 글을 비행장 항공역사사진과 함께 실었다.

같은 외부는 물론 내부를 포함하여 역사적문제가 현대적정세를 갖추면서 조선의 민족적색을 충분히 체현할수 있게 설계되었음을 쉽게 느낄수 있는 항적역사는 건국초기 조형에술적미감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하나다!》, 《양키는 물러가라!》 북남합의를 깨뜨리는자들은 민족의 배신자이다

로씨야의 올라지보스프코에서 15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에서 합의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로씨야주재 미국대사의 올라지보스프코방문을 계기로 미국총영사관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레닌공청기발과 로씨야연방 공청단기발 등을 든 시위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정책을 단죄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1비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연대성을 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공산당, 영국공청단(합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조선청년연구협회, 영국주재 사상연구소의 공청주최로 8월 31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시위자들은 우리 나라 기발을 흔들면서 《조선은 하나다!》, 《조선은 통일만세!》, 《양키는 물러가라!》, 《미국은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민족대결정책을 중지하라!》 등의 구호들을 제창하였다.

그들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위협성을 폭로단죄하는 선전물들을 보행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1비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연대성을 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공산당, 영국공청단(합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조선청년연구협회, 영국주재 사상연구소의 공청주최로 8월 31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1비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연대성을 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공산당, 영국공청단(합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조선청년연구협회, 영국주재 사상연구소의 공청주최로 8월 31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1비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연대성을 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공산당, 영국공청단(합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조선청년연구협회, 영국주재 사상연구소의 공청주최로 8월 31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로씨야 미국과 유럽동맹의 인권침해행위를 폭로

로씨야가 최근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동맹의 인권침해행위를 폭로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로씨야대표 파피야나 슬리조프바는 일부 유럽동맹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보정하지 못하는 등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침해당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성숙된 민주주의》국

가라고 하는 미국이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의무와 국가법의 리행을 회피하기 위해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판마노가지고있는 인권침해를 계속하고있으며 국제법규범들을 저촉되게 다른 나라 공민들을 침략하여 자기 나라로 끌어가고있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외국명토에서 테로행의자를 한하여 법정외의 처형과 무

인기들의 무차별적인 사용이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영국도 얼마전에 법정외의 처형을 위해 무기들을 사용하였다.》고 까닭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서방이 언론의 불가침성에 대해 그토록 떠들어대던것이 저들에게 저술하는 대중보도수단들에 압력을 가하며 기자들을 《검은 명단》에 포함시켜서 고문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1비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연대성을 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공산당, 영국공청단(합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조선청년연구협회, 영국주재 사상연구소의 공청주최로 8월 31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1비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연대성을 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공산당, 영국공청단(합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조선청년연구협회, 영국주재 사상연구소의 공청주최로 8월 31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방전맹원회의 1비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연대성을 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공산당, 영국공청단(합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조선청년연구협회, 영국주재 사상연구소의 공청주최로 8월 31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정책을 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미군기지설치 반대

일본의 오키나와현지사가 21일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현내에서의 미군기지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의 73.8%가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전후 70년동안 미군기지들은 오키나와에서 수많은 사

건사고와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고 까닭하였다.

현내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설치를 다그치고 있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고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시킬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총사병판이 22일 이란 무장단체는 자들의 위해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별장들이 지역에 불안정한 간섭을 할때로 유남침입을 지원하고 나라들사이에서 분쟁을 조성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이란을 반대하는

이러한 총사병판이 22일 이란 무장단체는 자들의 위해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별장들이 지역에 불안정한 간섭을 할때로 유남침입을 지원하고 나라들사이에서 분쟁을 조성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이란을 반대하는

이러한 총사병판이 22일 이란 무장단체는 자들의 위해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별장들이 지역에 불안정한 간섭을 할때로 유남침입을 지원하고 나라들사이에서 분쟁을 조성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이란을 반대하는

이러한 총사병판이 22일 이란 무장단체는 자들의 위해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별장들이 지역에 불안정한 간섭을 할때로 유남침입을 지원하고 나라들사이에서 분쟁을 조성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이란을 반대하는

군사훈련 진행

로씨야북부지역에 최근 북극에서 대규모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과정에서 비엔트와 람페비해의 수역에서 12차례의 해상 및 지상기지순행이씨일발사구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한다.

북한대사관평은 훈련의 예의결과를 총화하면서 북핵대변합전력사령부의 각 병태에는 현존 및 가능한 위협들로부터 북극연안과 로씨야연방성지대를 방어할때에 대한 과제가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새 레조전차로선 건설

이탈공 공군이 23일 자제로 개발한 신형무기들을 공개하였다.

《모하메 92》로 명명된 새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500km이며 비행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무게가 80kg이고 작전반경이 100km인 이 무인기는 정찰활동에 리용되게 된다.

살림집문제해결노력

스리랑카에서 최근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 정부는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북부와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살림집을 건

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살림집건설에 드는 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씨아비안조지

필리핀에서 최근 국가사이비안전위원회가 창설되었다.

23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위원회는 정부기관들과 상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시비위원회가 창설되었다는것과 관련하여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싸이비안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새 레조전차로선 건설

이탈공 공군이 23일 자제로 개발한 신형무기들을 공개하였다.

《모하메 92》로 명명된 새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500km이며 비행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무게가 80kg이고 작전반경이 100km인 이 무인기는 정찰활동에 리용되게 된다.

살림집문제해결노력

스리랑카에서 최근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 정부는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북부와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살림집을 건

이탈공 공군이 23일 자제로 개발한 신형무기들을 공개하였다.

《모하메 92》로 명명된 새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500km이며 비행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무게가 80kg이고 작전반경이 100km인 이 무인기는 정찰활동에 리용되게 된다.

살림집문제해결노력

스리랑카에서 최근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 정부는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북부와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살림집을 건

이탈공 공군이 23일 자제로 개발한 신형무기들을 공개하였다.

《모하메 92》로 명명된 새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500km이며 비행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무게가 80kg이고 작전반경이 100km인 이 무인기는 정찰활동에 리용되게 된다.

살림집문제해결노력

스리랑카에서 최근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 정부는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북부와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살림집을 건

이탈공 공군이 23일 자제로 개발한 신형무기들을 공개하였다.

《모하메 92》로 명명된 새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500km이며 비행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무게가 80kg이고 작전반경이 100km인 이 무인기는 정찰활동에 리용되게 된다.

살림집문제해결노력

스리랑카에서 최근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 정부는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북부와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살림집을 건

이탈공 공군이 23일 자제로 개발한 신형무기들을 공개하였다.

《모하메 92》로 명명된 새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500km이며 비행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무게가 80kg이고 작전반경이 100km인 이 무인기는 정찰활동에 리용되게 된다.

살림집문제해결노력

스리랑카에서 최근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 정부는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북부와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살림집을 건



케니아의 동물보호구